

꽃감아 나 살려!



깊은 산속 배고픈 호랑이가 토끼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 해요.
과연 숲속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

1



“배고프다.. 어! 저기 토끼가 있군. 잡아 먹어야겠다.”
“호랑님! 깨끗한 토끼가 좋으시죠? 세수하고 울게요~”

2



“안되겠다, 개구리 너라도 잡아 먹어야지. 어흥~~”
“잠깐! 제가 호랑님을 위해 꿀떡을 만들었어요!”

3



“아가야~ 그만 울어. 엄마가 꽃감 줄게.”
“뭐야? 꽃감이 얼마나 무섭길래 울음을 그치지?”

4



“소를 훔쳐볼까~ 으악 호랑이잖아! 도둑 살려~”
“으악! 꽃감님이 나를 만진다! 호랑이 살려~”

점을 이어서 호랑이와 토끼의 얼굴을 완성시켜 보세요~

